

알버타 어린이 썰매 사고 부상 급증



캘거리와 에드먼턴에서 겨울철 어린이들의 썰매사고 관련 부상이 부쩍 늘었다. 알버타 보건국에 따르면 에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도킹으로 인한 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AHS는 2020년과 2021년 12월 11일과 1월 7일 사이에 두 지역에서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CTV 뉴스 에드먼턴에 제공했다.

알버타 보건국 (AHS)에 따

르먼 에드먼턴에 있는 스톨리 아동 병원과 캘거리에 있는 알버타 어린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썰매사고 부상 어린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들어 7일 사이 썰매로 다쳐 어린이들의 응급실 방문자는 77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데본, 서스캐처원 요새, 레덕 병원을 포함한 에드먼턴 지역 의료시설들은 지난해 106명의 썰매 관련 부상자

를 맞았으나 올들어선 139명으로 늘었다.

캘거리에 있는 알버타 어린이 병원도 2020년 57명에서 올들어 1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캘거리 지역의 모든 썰매 관련 부상은 지난해 158건에서 올들어 241건으로 늘었다.

AHS의 대변인 캐리 윌리엄슨은 최근의 썰매 관련 부상 급증을 COVID-19 제한과 연관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국제유가 일제히 하락

미국 원유 재고 급증



캘거리와 에드먼턴에서 겨울철 어린이들의 썰매사고 관련 부상이 부쩍 늘었다. 알버타 보건국에 따르면 에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도킹으로 인한 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AHS는 2020년과 2021년 12월 11일과 1월 7일 사이에 두 지역에서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CTV 뉴스 에드먼

턴에 제공했다.

알버타 보건국 (AHS)에 따르면 에드먼턴에 있는 스톨리 아동 병원과 캘거리에 있는 알버타 어린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썰매사고 부상 어린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들어 7일 사이 썰매로 다쳐 어린이들의 응급실 방문자는 77명으로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데본, 서스캐처원 요새, 레덕 병원을 포함한 에드먼턴 지역 의료시설들은 지난해 106명의 썰매 관련 부상자를 맞았으나 올들어선 139명으로 늘었다.

캘거리에 있는 알버타 어린이 병원도 2020년 57명에서 올들어 1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캘거리 지역의 모든 썰매 관련 부상은 지난해 158건에서 올들어 241건으로 늘었다.

AHS의 대변인 캐리 윌리엄슨은 최근의 썰매 관련 부상 급증을 COVID-19 제한과 연관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아동 포르노 관련 캘거리 전과자 2명 기소



아동 포르노 범죄 관련 두 명의 캘거리 남성 전과자들이 기소될 예정이다.

알버타 주 법 집행 TASK 포스 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아동 착취 부서는 알버타와 서스 캐처원에서 두 남자가 십대 소녀들과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

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캘거리의 한 집이 수색되었고 두 명이 체포되었다. 이후로 법의학 분석가들은 집에서 압수된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장치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복구된 데이터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이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건 담당 ICE와 Dominic

Mayhew 경찰관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거기에 있는지 모른다는 가슴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소녀들이 성범죄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Cody Neubecker (34세)와 Gareth Wilson (32세)은 각각 성폭력, 성적 간섭, 성적 접촉 초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접근, 보호 관찰 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캐나다 우체국 우송 중 유골함 분실



납골 단지에 담기어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을 통해 보내어진 유골이 유족에게 닿지 않고 중간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체국 측은 열심히 찾고 있다면 사도 일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쳐진 상황을 탓했고 유가족은 차가운 동토 어딘가에 방치돼 있을 유골을 생각하며 황망한 지경에 빠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 데럴 베이커(Darrell Baker, 36)씨의 유골은 지난달 24일에 가족의 품에 안겨야 했다. 11월 26일 알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사망한 그는 장의사의 치료로 재가 된 뒤 유골함에 담겨 12월 22일 밴쿠버에 사는 누나 코트니 베이커(Courtney Baker) 씨 앞으로 부쳐졌다. 누나 베이커씨는 기한을

넘겨서도 도착하지 않는 유골함을 기다리며 트래킹 번호를 통해 우편수송 상황을 끊임없이 확인했다. 그사이 도착 예정일이 1월 12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우체국 관계자가 CBC에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볼 때 우체국은 아직도 이 유골함의 행방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이 우편물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면서 “우편물이 물류망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족에게 즉각 알려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유골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시인이다.

관계자는 또한 이 이메일에서 “불행히도 이 우편물이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보내졌

다”면서 일년 중 우편물이 가장 많은 시기인 데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더욱더 바쁘다고 밝히며 상황의 공교로움을 호소했다.

베이커씨는 동생의 유골이 “분명히 분실됐다”고 여긴다. 크리스마스 시즌임을 감안해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다는 소견이다. “하루빨리 가족 품에 안겨 잠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생의 유골함을 자신이 손수 골랐다고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독수리가 비상하는 형상은 그녀가 속한 락카파무스(Naka'pamux) 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디서나 독수리를 만나면 먼저 돌아가신 가족이 나를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막내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큰 충격에 빠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들의 뱃가루가 눈 덮인 땅 어딘가에서 썩어 일어났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 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JAZZ, BLUES, POP, R&B, ROCK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Tel :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Tel: 403-926-3890

현 화실

Tel (403) 861-9290